

# 독도의 마니또, 우산

-The weather will be nice.-

접 수 번 호	기재하지 마시오
학 교 명	인천 삼산고등학교
동아리(팀)명	우산

#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 동아리(팀)명 소개



'우산'은 과거 독도의 명칭인 '우산국'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이 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듯이 우리도 독도의 아픔과 슬픔을 막아주는 '독도의 우산'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팀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세 개의 우산에서, 활동들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백 명이 넘는 우산이 독도와 함께해주었습니다. 삼산고등학교 학생부터 외국인까지 함께 해준 모두가 '우산'입니다.

## ○ 동아리(팀) 구성원 ※ 동아리(팀) 구성원 변경 시 변경 전·후 명시하여 표기할 것

순번	성명	학년	동아리(팀) 내 역할
1	신서진	2	'독도 zone'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내용을 조사 후 '카카오톡' 형식을 활용하여 게시물 제작/ 교내 활동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인터뷰 실시/ 공항에서의 독도 연설을 위한 한글 및 영어 대본 중 '샌프란시스코 조약' 내용을 담당하여 작성/ SNS 프로필 및 독도 우표의 디자인 창안
2	최승희	2	'독도 zone'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후 카드 뉴스 형식으로 제작/장보기 담당으로 '독도 마니또'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구매/ 공항에서의 독도 연설 중 한글 및 영어 대본 중 독도에 대한 소개 및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내용을 담당하여 작성 / '독도 책갈피'아이디어를 냄
3	민지현	2	'우산'이라는 팀명을 생각해냄/ '독도 zone'에서 우리 팀 '우산'에 대한 소개를 맡아 포스터 제작 및 전체 데코 담당/ '독도 마니또'활동 중 지문찍기 아이디어를 냄 / SNS 홍보 게시물 총괄자로 관리함 / 공항에서의 독도 연설 중 책갈피와 우표에 대한 설명 부분을 맡아 한글 및 영어 대본 작성/ 팀내 포토그래퍼

##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 활동 주제 : 점점 늘어나는 우산

- 주제 선정 이유 : 첫째로, 한국은 독도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국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한 이유에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독도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히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지 알고만 있다. 독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독도를 향한 관심은 낮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학생들은 그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고, 우리는 그 원인을 매번 진행해 오던 독도 교육의 방식이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래서, 독도를 홍보하는 방식을 바꾸어 좀 더 활동적이고 홍보를 받는 입장의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한 형식으로 진행을 해 본다면 단순히 독도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닌, 그 홍보를 기회로 삼아 독도에 대해 더 생각해보고 독도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둘째로, 독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독도를 '다케시마'로 알고 있는 외국인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우산의 범위를 외국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키기로 했다.

### ○ 활동 기간 : 5월 2일 ~ 8월 9일

○ 추진 방법 : 활동 주제처럼 우리는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장되도록 가까이 있는 삼산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선생님,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대상을 넓혀갔다. 물론 대상이 다양한 만큼 그에 맞게 각기 다른 활동을 진행했다. 삼산고 학생들과 선생님분들께는 오랫동안 독도를 노출시키고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전시 형식인 '독도존'을 약 2주간 설치하고, 함께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편지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자주 독도를 접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sns라고 생각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로 독도를 홍보해 나갔다.

마지막 목표였던 외국인은 우리의 sns를 볼 수도, 오래, 그리고 또 많이 볼 수 없었기에 날을

잡아 인천공항을 찾아가 연설을 하는 방식으로 독도를 알렸다.

우리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독도 교육 방식과 조금 다른 방향인 '참여형'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우리가 홍보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홍보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질문에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가장 효과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독도 마니또', sns 손글씨 캠페인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 ○ 활동 내용(자유롭게 기재하시오.)

활동 명 : '독도 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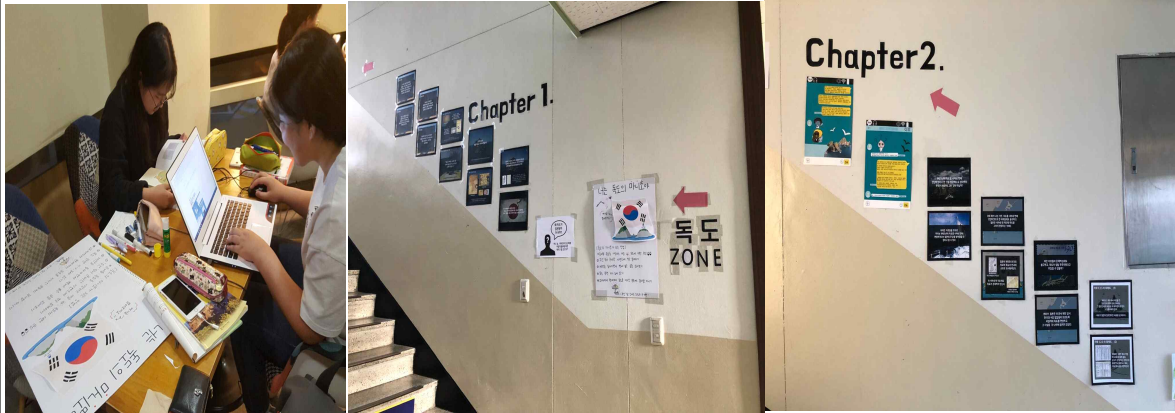
날짜 : 5월 20일 ~ 5월 29일 - 독도 관련 자료 조사 및 포스터 제작

5월 30일 ~ 6월 8일 - '독도 존' 게시

활동 장소 : 삼산고

'독도 존'은 우리 팀이 삼산고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부 계단 벽에 마련해 놓았던 독도 홍보 공간이다. 독도를 홍보해야 할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나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독도를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팀이 처음 주제를 정했을 때 지금껏 진행되어 왔던 독도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으려 했기에 우리의 주변인인 학생들부터 독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여 점점 퍼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포스터를 제작하기 전, 각자 독도 관련 도서, '독도 바로 알기' 책,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포스터 제작용 사전 자료를 준비하였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독도란 어떤 곳인지, 독도가 한국의 땅인 역사적 근거, 독도를 위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등 분야를 나누어 서로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가진 포스터를 제작해 보았다. 한국 사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바탕으로, 세 개의 분야 중 '독도가 한국의 땅인 역사적 근거'에 초점을 두어 집중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도록 노력했다. '독도 존'의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포스터의 디자인이나 형식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팀의 목적은 삼산고 학생들이 학교의 계단을 이용할 때 포스터를 보고, 바로바로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호기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카카오톡'의 배경을 이용한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계단을 이용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글들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한 카드뉴스 형식도 이용하였고, 함께 근거 자료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이해를 도왔다. 전체적인 부분으로는 평소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 등을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방에 넣은 후, 다시 꺼내보는 경우가 드문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며, 무조건 한 번씩은 지나가야 하는 학교 계단 벽에 게시해 두어, 삼산고 학생들은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독도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해 보았다. 이 '독도 존'은 약 2주 동안 게시되었으며, 많은 학생들, 선생님들이 '독도 존'에 방문하여 독도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활동 명 : 독도 사랑 지문 캠페인

날짜 : 6월 7일 ~8일

활동 장소 : 삼산고

2

'독도 사랑 지문 캠페인'의 전체적인 내용은 큰 전지에 독도의 경관을 테두리만 그린 후, 테두리 안의 채색은 삼산고 학생들의 지문으로 채워나가는 것이다. 우리 팀이 준비한 검은색 인주로 전지에 미리 그려져있던 독도 테두리 안을 우리 학생들의 지문으로 색칠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활동에 참여하여 독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었다.

이것을 좀 더 의미적으로 풀어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지문을 주로 계약이나 각서, 또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식별처럼 중요한 곳에서 '나'만의 징표를 남기는 데에 쓴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 '나의 마음'으로 두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독도 그림을 우리의 지문, 즉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활동을 준비한 것이다.

활동은 삼산고등학교 1,2학년 반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캠페인의 의도,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지문이 채워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약 100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손가락에 검은색 인주를 묻혀 독도를 색칠해 주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준 결과 채워진 독도를 완성할 수 있었다.



3

활동 명 :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편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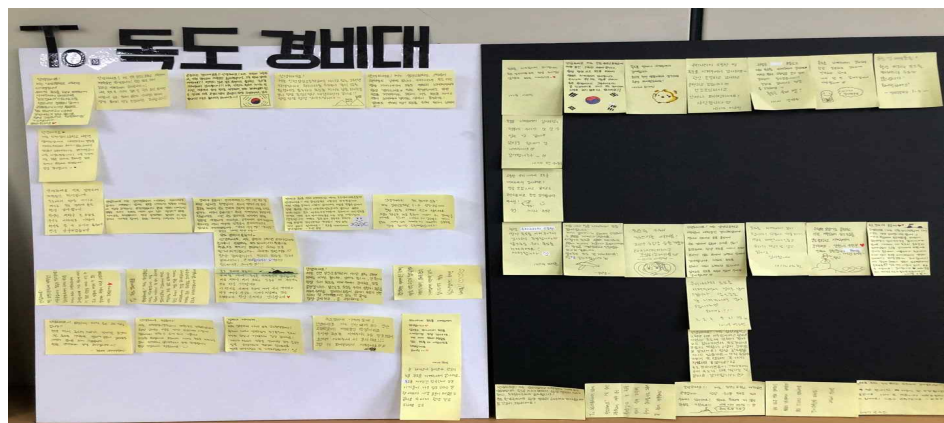
날짜 : 6월 4일 ~10일

활동 장소 : 삼산고

마니또를 하면 빠질 수 없는 활동 중 하나인 편지쓰기를 적용시켰으며 편지를 받는 대상을 삼산고 학생들의 마니또인 독도에서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로 시선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 편지쓰기를 희망하는 삼산고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독도를 지켜주시는 경비대 분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을 수 있었다. 편지에는 “최고로 멋진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는 경비대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편지들을 하드보드지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활동임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활용해 “독도”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도록 구성하였다. 이 편지는 독도 경비대 분들에게 선물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이다.



활동 명 : 페이스북 '우산' 페이지 운영

날짜 : 7월 21일 ~ 8월 7일

활동 장소 : SNS - 페이스북

4

SNS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빠른 속도로 피드를 내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시간 내에 끌어야 한다는 점이 까다롭다. SNS를 자주 접하는 학생으로서, 만약 우리가 글을 보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산'의 소개 글과 그동안 한 활동들을 올리고 나서 바로 독도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 보다는, 그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손글씨 캠페인'으로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로 계획했다.

손글씨 캠페인이란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독도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것을 약속하자는 의미를 손글씨로 글을 적어 SNS에 올리는 것이다. 지정된 문구를 종이에 손으로 직접 쓴 뒤,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캠페인에 동참해 줄 친구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계획했던 대로 다음으로는 독도에 대한 정보를 게시했다. 많고 많은 정보들 중에서 일본의 주장이 모순인 이유를 올렸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지만 '왜' 독도가 우리 땅이고, 일본의 주장은 틀렸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sns가 아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독도를 위한 콘텐츠를 올릴 예정이다.



활동 명 : 외국인들에게 독도 홍보하기

날짜 : 7월 20일 - 엽서 제작 / 7월 21일 - 책갈피 제작, 영어 대본 작성  
/ 7월 27일 - 설명 자료(스케치북) 제작  
/ 8월 1일 - 인천국제공항 방문

활동 장소 : 인천국제공항

5

한국인들의 경우, 직접 독도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독도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경우는 달랐다. 인터넷에서 자료들을 찾아 본 결과, 외국인들 중, 독도를 일본에서 정한 이름인 '다케시마'로 알고 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았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독도'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독도'라는 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독도를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독도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독도에 대해 더 알린다면 독도 홍보를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 팀은 인천공항에 방문하여 한국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홍보하기로 했다. 언어는 만국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독도는 어떤 곳인지, 왜 독도가 한국 땅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설명을 영어 대본으로 작성하였다. 하지만, 영어가 서툰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나 억양 등으로 소개를 한다면, 그 설명을 듣는 외국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설명을 도울 수 있도록, 간단히 스케치북에 설명할 내용을 그림이나 간단한 단어로 표현해 놓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적도록 하였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라도 그들의 머릿속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담긴 엽서와 책갈피를 함께 준비하였다. 우리 팀은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인천 공항에 방문하여, 여러 외국인들에게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활동 보고서	보고서	'점점 늘어나는 우산'을 주제로 한 독도체험 발표대회 보고서
2	인천 공항 방문 - 영어 대본	대본	외국인에게 독도 홍보 시 준비했던 영어 대본
3	활동 후 성과 인터뷰 녹음본	음성 파일	교내 활동 이후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던 학생들에게 인터뷰 내용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 활동 성과

교내 활동을 보면, '독도 zone'은 가독성을 높여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목표였는데 위치 선정도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계단인 만큼 적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에 보지 않은 학생들이 드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 '독도 마니또'활동을 통해서는 주입식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활동을 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참여하여 '독도 지문'과 '독도 경비대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으므로 이 또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독도 지문' 활동은 약 160명의 학생이 '독도 경비대 편지'는 약 50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또한 교내 활동을 마친 후 인터뷰를 실시하므로 한 번 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독도존을 매일 보게되니까 거의 외워졌고 나중에 독도에 관한 글을 써보고 싶어졌다."-조민아 학생 / "어려운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고 흥미로웠다."-이수진 학생 / "평소 개인적으로 하지 못하던 활동을 독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전수민 학생

인터뷰를 통해 교내에서 단기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토대로 계획한 SNS활동을 통해서는 "페이스북 우산-독도 홍보단"을 개설하여 교내 학생들 뿐 아니라 외부 사람들에게 까지 독도에 대해 이야기 해줄 수 있었다. 이 페이지 게시물들은 최소 38명에서 최대 639명에게 도달하였다.

교외 활동으로 '공항에서 독도 알리기'를 통해서는 한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독도를 알릴 수 있었는데 스케치북을 활용하여 친근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책갈피와 엽서를 통해서 일시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독도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었다.

#### ○ 향후 계획

"독도의 우산이 되어주실래요?"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말속에는 사람들이 홍보를 받는 입장을 넘어서서 직접 독도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활동이 이 단계에 도달하길 바랐던 것과는 다르게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활동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SNS 활동을 보면, SNS 활동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좋아요 와 공유를 통해 독도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했던 활동이었다. 하지만 관심은 저조했다. 우산-독도 홍보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게시물은 약 600명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좋아요'의 개수는 현저히 적었으

며, 약 600이라는 수는 SNS이용 중 스쳐지나간 것 또한 포함하기에 이 사람들이 모두 게시물을 읽어 보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다. ‘독도의 우산이 되어주세요’ 손글씨 캠페인 또한 널리 퍼져나가지 못하였다.

“그럼 이제 어떡하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성급했던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답을 내렸다.

이를 보완하여 사람들이 현재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접목하여 계획하고 있는 아이디어에는 “독도 ASMR 동영상”이 있다. 최근 전라북도 페이스북은 전북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ASMR 동영상을 제작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독도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지고 ASMR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개선해가며 좀 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통해 꾸준히 SNS 활용을 하여 독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향유하고 좀 더 독도를 대중에게 노출 시키고자 한다.

####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신서진	독도와 함께한 100일간의 시간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였습니다. 잠자기 전까지 독도를 생각하고 독도로 맞이하는 아침. 아마 이 100일이 지금껏 살아온 18년 인생 중 가장 많이 독도에 대해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독도의 ‘마니또’라는 책임감과 더불어 ‘우산’이라는 팀의 무게를 지고 부끄럽게도 독도가 왜 대한민국 땅인지 말할 수 없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대며 사람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고 독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짐에 따라 낮을 많이 가리는 제가 먼저 다가가 초면인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하여 이야기도 해보면서 한 뼘 정도는 성장해갔습니다. 그렇다고 독도의 ‘우산’으로 활동한 나날들이 늘 맑은 하늘과 같지는 않았습니 다. 사실 다른 친구들과 팀으로 대회에 나가본 것이 처음인 저는 조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서툴렀습니다. 비슷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 세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원하는 색깔이 뚜렷하지만 달랐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부딪침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활동을 한 시간보다는 저희들끼리 만나서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하며 의견을 모으는데 보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한 결과 함께 맞춰가며 조금은 느리게 갔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색다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혼자라면 못해냈을 좀 더 용기를 내야하는 폭넓은 활동들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하던 중 생각보다 저조한 SNS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풀이 죽기도 하였는데, 공항에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 독도에 대해 이야기를 해가며 독도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도 따뜻한 시선으로 귀 기울여 주시는 분들을 만남에 따라 독도가 웃을 수 있는 날들에 대한 희망을 더욱 채워나갔습니다. 아마도 100일간의 활동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그저 대회가 아닌 소중한 추억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희	<p>활동을 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려야 할 나조차 독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이 많았기에 걱정이 많았다. 더 깊숙이 생각해보니,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하지만, 그러한 나의 부족함 덕분에 나와 같은 상황에 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깨달을 수 있었고, 우리 팀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독도의 어떤 점을 알리는 것이 좋을지 정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했기에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또한, 나 또한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독도를 홍보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더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p> <p>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걱정도 굉장히 많았다.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적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했던 지문 찍기 활동이나 경비대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은 모르는 사이의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유발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을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심 있게 우리의 활동들을 바라봐 주고, 옆에서 지켜보다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을 보며, 오히려 자신감을 얻고 다른 활동들 까지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비록, 모든 활동에서 우리 팀이 예상한 만큼의 활발한 참여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아쉬운 점도 있긴 했지만, 몇몇 활동이라도 좋은 반응을 얻고 독도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과 우리의 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할 뿐이었다.</p> <p>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내가 단순히 몇 개월 동안 대회에 참가했다는 느낌보다는 진정으로 독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독도에 대해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기만 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활동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되었고, 독도문제가 해결되는 데 조그만 발돋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로 우리의 활동들이 독도에 도움이 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들의 활동이 나의 학교의 학생들에게서 외국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것처럼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의 활동만으로는 결과를 알 수 없었던 것이 많은 이들의 참여로 독도 문제에 좋은 영향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평소 생각으로만 하고, 몸소 실천하지 못했던 독도사랑을 다양하게 표현해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나에게는 좋은 경험이, 독도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p>
민지현	<p>독도와 함께한 활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과연 우리가 독도의 우산 역할을 잘 해낸건지 생각해보았다.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긴 시간동안 평소엔 하지 못할 다양한 경험들을 직접 기획하고, 우리가 기획</p>

한 활동들을 삼산고 선배,친구,후배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감정이 가장 먼저 들었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았다면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일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진로와 연계되는 홍보활동이 주를 이뤄서 대회 준비하는 기간동안 성장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많이 얻어가는 만큼 신경써서 활동한 것 같다. 예를 들어, 독도 존을 만들 때에 가독성에 초점을 두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롭게, 한눈에 보기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접근성이 쉬운 sns활동에도 주력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질지에 가장 신경을 쓴 것 같다.

모든 활동들이 의미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학교에서 했던 '독도 마니또' 활동이 뜻깊었다. 아마 우리 활동의 거의 처음이라 서툴렀던 만큼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 듯 하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반 친구들, 더 확장해서 선후배에게까지 '우산'의 손길이 닿았고, 그들은 흔쾌히 함께 '우산'을 퍼주었다.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 학교 밖에서도 더 열심히 독도를 알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밖에도 인천공항에서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해 영어로 연설한 것은 평소 상상치 못한 도전이었다. 걱정했던 것보다 외국인분들이 관심있어 해주셔서 독도 마니또 활동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부터도 잘 몰랐던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모순인지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당당해지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다.

독도 대회를 나갈까 말까 친구들과 고민한 끝에 함께 나가자고 결정한 우리 '우산'에게 칭찬의 말을 건네고 싶다.

## 5. 건의사항

○ 매년 진행하는 독도 교육에 있어서, 독도 관련 전문가 분들이 직접 여러 학교들에 방문하여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